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61.2억 투입... 기업 발굴·육성

'2019년 창업지원사업 추진계획'

초기 창업기업·재창업기업 120개사
맞춤형 보육 시스템으로 집중 지원

부산시는 올해 창업지원사업 24개에 사업비 61억 2000만원을 투입해 기술창업 지원사업과 성장유망 기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19일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1년 미만 (예비)창업기업 200개사를 선발해 창업보육을 실시하고 창업을 성공시키는 소위 정량적 성과위주의 지원사업을 해왔다"며 "올해부터는 1년 미만의 초기 기술창업기업 외에 생존율과 경영성과가 높은 숙련창업 기업 및 재창업기업 등을 포함해 모두 120개사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함으로써 부산형 대표 스타트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부경대 용당캠퍼스 내 창업지원센터와 창업카페 3개를 창업지원사업의 거점으로 창업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지



부산시는 올해 창업지원사업에 61억여 원을 투입해 기술창업 지원사업과 성장유망기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시

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에 구축된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창업 Plus Center」는 청년창업 특화시설로 중점 지원한다. 또 부경대 용당캠퍼스 이전 계획에 맞춰 용당캠퍼스 내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중장년 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는 ▲중소기업들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내벤처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사내벤처 창업 2년 이내 기업 포함)에 대한 전문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부산지역 창업기업

에 대한 전수 조사 및 DB를 구축해 성장유망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부산시 대표 창업기업으로 육성 ▲창업기업의 신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 테스트 베드와 창업기업 제품의 홍보 강화 등의 사업이다.

그 외에도 ▲창업기업 제품 판매장(광복동 위치, 크레이티브샵) 확대, 클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유통채널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인턴 지원사업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창업지원사업 등으로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칭)미래혁신포럼을 통해 창업기업과 지역 벤처 및 중견기업들과의 상호 협업 및 엔젤투자를 촉진하고, ▲부산은행과 함께 창업투자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부산재창업성공캠프(R-CAMP)를 중심으로 부산지역 재창업 기업에 대한 인력과 마케팅, 투자유치를 확대

하고, 재창업 경진대회, 재창업 축제(REFE부산) 등을 통해 재창업 중심도시로서의 위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의 원천인 창업·벤처기업에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자 매칭펀드 50억원을 포함해 청년창업펀드, 임팩트 펀드 등 창업투자펀드 21개 3,404억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유치와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데스밸리(Death Valley) 구간의 극복을 위해 펀드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일 부산시 일자리창업과장은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들을 서로 연결하고 단계화, 고도화하여 창업기업이 스케일업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선7기 창업지원사업이 부산의 경제 전반에 지속적인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metroseoul.co.kr

남원시 120봉사대, 60여개 마을 찾는다

찾아가는현장민원 봉사단 생활밀착형·체험현장 봉사 실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남원시 120봉사대가 올해 60여개 마을을 찾아가는 대장정에 돌입했다.

19일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사매면 화정마을을 방문한 찾아가는 현장민원 봉사단은 각 가정을 방문해 복지상담, 전기, 수도, 가스, 보일러, 난기계수리, 이·미용 봉사를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복지상담팀은 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각각지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별 맞춤형 영농교육을 실시해 풍년농사를 예약했다.

찾아가는현장민원 봉사단은 7개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돼 매주 화·목요일 1개 마을씩 60개 마을을 방문해 생활밀착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남원시 간부공무원과 함께하는 체험현장봉사도 실시한다. 체험현장봉사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4개 마을을 선정하여 전라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엘지전자광주서비스센터, 전기안전공사, 보건소 등의 협조를 받아 빨래봉사, 전자제품수리, 전기안전점검, 한방봉사를 실시



호평받는 남원시 120봉사대 대장정 돌입

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의견수렴 등 소통간담회도 갖는다.

생활현장투어도 주 3회 운영하고 있다. 생활현장투어는 봉사대원이 시 전역을 순찰하면서 도로, 교통, 환경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도시미관 저해사항을 점검해 경미한 사항은 120봉사대가 직접 처리한다. 예산이나 장비 등의 수반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이첩해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다. 취약계층 생활민원서비스 지원도 함께 한다.

취약계층 생활민원서비스 지원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세대 120세대를 선정, 대상 세대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불편사항 정비는 물론 안부확인과 말동무도 함께해 독거노인의 정서함양에 기여한다. /전북 남원=봉채영 기자 bcy2020@

'탐구22호' 본격 활동... 수산자원조사 확대

국립수산과학원

"올해부터 3척 조사선 동시 조사 신뢰도·정밀도 높은 진단 기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수산자원조사를 확대·강화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9일 "지나해 11월 새로 건조한 수산과학조사선 '탐구22호(1458톤)'가 본격 투입됨에 따라 우리나라 동·서·남해, 3개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조사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수과원이 보유하고 있는 800톤급 이상인 수산과학조사선은 탐구 20호(885톤), 탐구 21호(999톤), 탐구 22호(1458톤) 등 3척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수과원은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주요 어종의 산란정보 및 자원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국 경계해역(한·중·일중점조치수역, 한·일중간수역)을 포함한 해역별 난자치어 조사 ▲특정해역(동해북부해역, 이어도 주변해역, 서해5도)의 자원조사 ▲중점 대상어종(살오징어, 명태 등)의 유생조사 ▲근해 자원분포도 조사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수산자원 정보의 신뢰도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연구원들이 탐구22호에 탑재한 다중개폐식네트(MOCNESS)를 정비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200여개 조사정점을 400여개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인 자원변동을 예측하기 위해 주요 어종의 시기별, 서식해역별 집중 조사를 수행한다.

이번 2월 조사(14일 출항)에서는 탐구 22호에 탑재한 다중개폐식네트(MOCNESS)를 이용해 명태의 산란시기(12월~2월)에는 8개의 특정 수심대로 구분해 시험조사하고, 해양환경과 수심대별 분포특성 간의 관계를 연구할 계획이다.

탐구22호에 탑재한 다중개폐식 '네트'는 특정 수심에서 분포하는 어란과 자치어 채집망을 말한다.

또한 살오징어의 자원량 변동 조사를 위해 제주 남부·동부 해역의 54개 정점을 중심으로 겨울 산란군의 유생조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서장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그동안 수산자원조사 인프라 구축과 자원조사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부터 3척의 조사선이 동시에 자원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우리바다 상태를 더욱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인락 기자 remark@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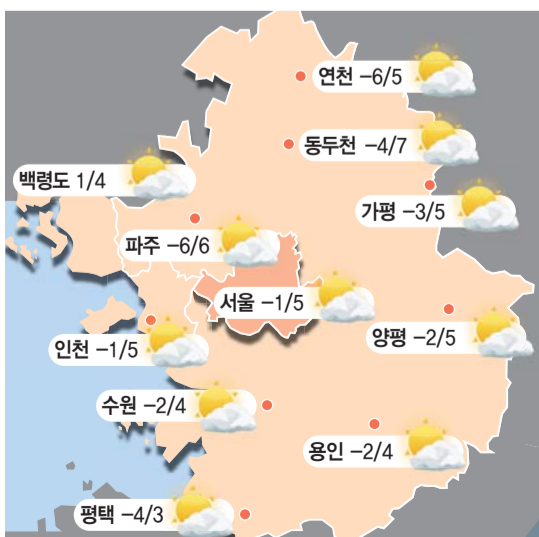
해돋이 / 07:16 | 해질 / 18:16

2월
20일(수)
음력 : 1월 16일

수도권 날씨

-1 ~ 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 화물차 구입 지원

정읍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보조금 지원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예산 4억 8200만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 조기폐차 300여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5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된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 폐차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신청 접수 마감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면서 그 외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대상차량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조기폐차 후 신차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 당 400만원씩 총 5대 차량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북 정읍=봉채영 기자 bcy2020@

김제시

하키 전지 훈련지로 급부상

김제시가 하키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김제시는 오는 23일까지 부산 동이대 및 경민대, 세한대, 전주대, 우석대, 청주시청, 대구 수성구청, 광산구청 등 태권도 13개팀 25명과 하키 꿈나무 선수 1개팀, 51명이 김제 국민체육센터에서 본격적인 합숙훈련에 돌입해서 대표 선수 모두 실력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동계 훈련팀들이 김제를 찾는 것은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한 기온과 훈련팀에 무료로 제공되는 체육시설 및 잘 갖춰진 스포츠 인프라에 식당·숙식 안내와 편의제공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본다. /전북 김제=봉채영 기자